

광주만 유독 '좁은 문'...공시 경쟁률 전국 1위 이유는?

올해 9급 36.9 대 1로 전국 평균의 3배...모집인원은 97명으로 전국 최저 지역 일자리 드물고 코로나 휴직자들 불황에 복직 늘어...공시생들 '답답'

광주에서 지방직 공무원 시험준비에 나선 취업준비생 김모(26)씨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답답함을 느꼈다. 오는 22일로 예정된 광주지역 지방직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전국 1위'라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왜 광주만 유독 지방공무원 경쟁률이 높은지 모르겠다"면서 "광주-전남에 좋은 일자리도 없는 데 경쟁률까지 높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전국적으로 공무원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광주지역 지방 공무원 경쟁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달 22일 전국 동시 실시되는 지방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의 광주지역 경쟁률은 36.9대 1이다. 행정직군은 64.7대 1, 기술직군은 18.1대 1로 집계됐다.

9급 일반 행정은 100.5대 1까지 기록하기도 했다.

지방공무원 경쟁률이 알려지자 광주지역에서 공무원시험준비를 하는 '공시생'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고물가에 취업은 힘든데 공무원 경쟁률까지 높아 언제 취업할수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애를 태

우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 조사결과 지난해 호남지역 청년들은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으로 모두 '수입'을 꼽았고, 광주지역 청년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은 국가기관(25.5%)이었다.

광주지역 공시생들은 지역기업들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조건도 좋지 않아 공무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공무원 시험 통과를 '바늘구멍' 같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2년여 전부터 지방직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는 송모(여·25)씨는 "졸업 후 하고 싶은 일과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고심했지만, 정작 좋은 일자리가 없어 청년이 보장되고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공무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올해 취업한 새내기 공무원들도 졸업 후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해 공무원을 선택했다고 입을 모았다.

공무원 A(32)씨는 "대학교에서 농업 관련 학과를 졸업했지만 적성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고민 끝에 공무원직을 선택했다"면서 "광주에서 머물며 직장생활을 할 선택지는 그리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공시문을 통과한 광주지역 공무원 김모(여·25)씨도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했지만 광주에 일자리가 많이 부족한 걸 느끼고 그나마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계열의 공무원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공무원 시험 입시 전문가들은 광주지역 공무원 채용 인원이 타지역보다 적은 점도 한 이유라고 입을 모았다.

올해 17개 광역지자체 원서접수 현황을 보면 올해 광주는 97명을 모집한다.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2자리 수 모집으로 인원이 가장 적다. 하반기(11월 2일)에는 8명을 뽑는다.

광주시는 지난 2022년 451명을 선발했지만, 지난해 117명으로 줄어 올해까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경쟁률도 2022년 17.0 대 1, 지난해 39.4대 1로 꾸준히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광주시는 모집 인원에 감소에 대한 이유로 코로나19 당시 업무량 증가 등의 이유로 휴직자들이 많아졌고 경기가 좋지 않아지면서 다시 복직해 모집 인원이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지역 휴직·복직 현황을 보면 2019년 당시 184명이던 휴직자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258명으로 급증했다. 반면 100명 초반대를 유지하던 복직자는 2022년 197명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205명이 복직했다.

물가상승과 부동산 경기까지 불황을 겪으면서 경제적 이유로 복직하는 공무원들이 늘어났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김দিন 기자 kdi@kwangju.co.kr

“계약직 노동자, 정규직으로 전환됐더라도 재직기간 임금 반영하는 호봉제 대상 아냐”

광주지법, 노동자 청구 기각

계약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더라도 재직기간을 임금에 반영하는 호봉제 대상자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4단독(부장판사 이재석)은 노동자 4명이 재단법인 전남도국제농업박람회(박람회)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노동자들은 전남도 출연으로 설립된 박람회와 계약직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재직기간을 경력에 포함한 경력가중치를 토대로 책정한 연봉을 받았다.

하지만 전남도는 지난 2021년 5월 재직기간을 매년 경력가중치에 추가로 반영하는 것은 오류이며

노동자들에게 과다한 연봉을 지급하고 있다는 내용의 정기종합감사결과를 박람회 측에 통보했다.

박람회는 이후 재직기간을 경력가중치에서 제외하고 산정한 연봉에 따라 임금을 지급했다.

노동자들은 "13년 동안 재직기간을 포함한 임금이 지급된 것은 관행이었고, 노동자 동의절차 없이 취업규칙인 보수규정을 불리하게 변경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박람회측이 경력가중치에 따른 연봉을 지급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보수규정에 따르면 원고들은 성과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 호봉제 적용 대상자로 봐야하고 재직기간의 경과에 따라 연봉이 인상되는 호봉제 대상자가 아니다"면서 "박람회측이 규정 해석 오류를 시정해 연봉을 산정했고, 보수규정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악성 민원인 대응 훈련 광주시 서구 서부경찰서와 합동으로 19일 청사 민원실에서 악성민원인에 대한 대응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서부경찰이 민원담당공무원의 신고로 출동해 악성민원인을 제압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고속도로서 후진하다 사망사고...운전자 법정구속

광주지법, 금고 1년 선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가 내 차와 충돌 하기 전에 다른 차량 운전자들은 피해 갔고, 비상 깜빡이도 켜는데...”

광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희석)은 19일 여성운전자 A(66)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적용해 금고 1년을 선고하고 구속했다.

A씨는 재판장이 구속 전 진술기회를 주자 피해자 탓을 했다.

화물차 운전자인 A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전

6시 40분께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무안·광주 분기점에서 사고를 냈다.

나들목을 지나친 A씨는 시속 3km로 후진과 정차를 반복했고, 피해자 B씨는 고속도로에 서있는 A씨 차량을 보고 급제동을 했지만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숨졌다.

재판부는 "A씨는 사고 현장 고속도로에서 최저속도인 시속 50km 주행의무도 위반했고, 피해자 B씨가 고속도로에서 앞선 차량이 후진과 정차를 반복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면서 "유족과 합의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경영난에 직원들과 공모 허위 퇴사 처리 실업급여 받아 임금 지급한 업주 징역형

매출감소로 회사경영이 어려워지자 직원들과 공모해 허위로 퇴사처리 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해 임금을 지급한 업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판사 나상아)은 사기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자재 도소매업자 A(53)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와 공모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직원 8명에 대해서는 50만~2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A씨와 직원들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해 총 1

억 4000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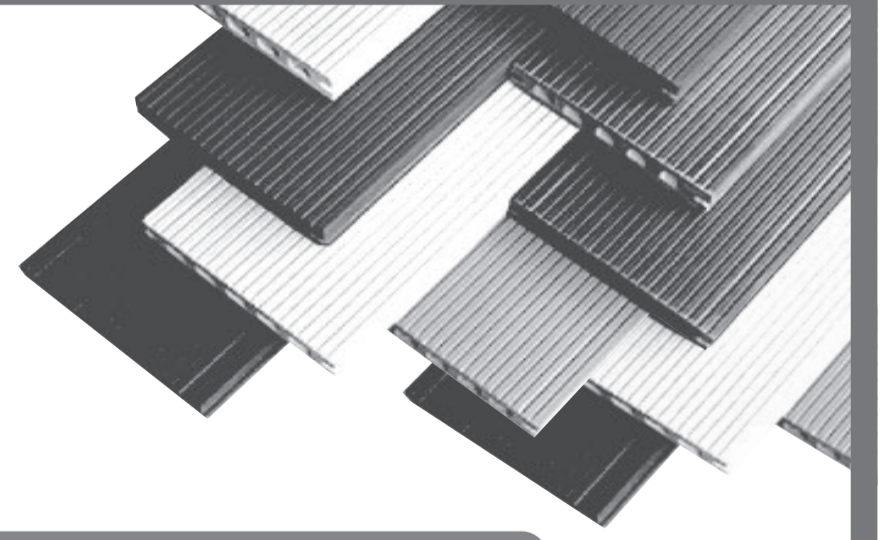
A씨는 매출이 감소해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직원들과 짜고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경영상 필요와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라는 이유를 기재한 실업급여신청서를 광주고용노동청에 제출해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부정수급액, 추가 징수액 일부 또는 전액을 납부했고 추가적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